

지역 소식통

고창군, 축사 악취 줄인다

고창군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사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농장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저감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축사악취 저감시설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해 축산 환경 관련 민원을 50%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축사악취는 농장마다 사육환경이 다르고, 냄새원인과 시간, 유형이 제각각이다. 이에 군은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축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해 지역사회의 갈등 없는 공존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저소득층·생계위기가구

고창군 총 23억원 지원

고창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한시생활비 지원 사업을 신속추진 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총 23억원(잔액 국비)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월 말 기준 관내 기초수급자 2385가구, 차상위 계층 2022가구, 총 4407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 등 보장내용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42만원까지 차등지원 하게 된다. 특히 고창군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지역화폐(카드, 지류)로 지원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관내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원촌마을 주거경관 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의 도비를 확보, 시비 5억 원 더해 총 10억 원을 들여 주거경관 개선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원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이 자리한 곳으로 이와 어울리는 마을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휴식공간 등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호소”

## 유진섭 정읍시장, 코로나19 극복 대시민 서한문 발송 “우리의 생사·아이들 미래 걸린 일... 확산 방지 사활”

유진섭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전 시민의 동참을 당부하며 대시민 호소 서한문을 발송했다.

유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예방중심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오는 4월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중단과 외출·사적 모임 자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사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유진섭 정읍시장.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시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지속 방문해 손 소독제와 살균제를 배부하며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영업 중단을 권고해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상춘객의 발길이 예상되는 천변로 일대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특히,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맞춰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생활 방역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에 67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과 지역 소상공인에 도·시비 34억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까지 정읍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이 청정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며 "불편하고 힘든 시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반드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코로나 대응 '잠시 멈춤' 홍보

### 구)명동의류 사거리서 캠페인

정읍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8일 구)명동의류 사거리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잠시 멈춤' 캠페인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줄임으로써 집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과 필요성을 알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시설 및 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내 동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 포스터 3,000장을 제작해 밀집접촉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했고 시내버스 측면 광고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와 함께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했고 시내버스 측면 광고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돼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

## 부안군, ASF·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 총력

### 행안거점 연중 방역 상시 운영

부안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돼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는 발생이 없었으나 경기와 인천지역의 양돈농가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14건 발생했고, 아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구제역과 AI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여 평시방역체제로 전환, 행안과 줄포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 2개소 중 줄포거점소독 3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하지만 행안 거점소독 상시 운영하여 양돈농가

를 비롯한 축산관련 시설과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축산관련 시설 점검, 축산농가 예방활동 강화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체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청정부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6개월 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활동에 힘써주시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지만 ASF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5월 31일까지 읍·면·동 접수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천㎡ 이상 ~ 1만㎡ 이하다. 대상 품목은 4개 품목(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 감자)이고 시장격리 지원 사업은 건고추가 제외된다.

양파는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건고추와 노지 감자, 생강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추, 노지 감자)이고 시장격리 지원 사업은 건고추가 제외된다.

양파는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건고추와 노지 감자, 생강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